

# 50 사랑의 제자 요한

## Chapter

요일 4:7~21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은혜찬송 213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오늘 배울



## 말씀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2.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두 가지만 적어 보세요.

하나.

둘.



## 말씀을 이해하기

사도 요한은 어부로서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낚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학식도 없었고 성격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희를 멸하자고 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가 주님께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과 야고보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어머니를 통해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였고, 식사 때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아끼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모두를 지켜본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부터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평생 봉양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는데 말년에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 설교를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의 참 사랑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일 4:16)

And we have known and believed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h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in him. (1 Jn 4:16)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눅 9:51~56)

(요 19:25~27)

(요일 3:16~18)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요한일서 4장 7~12절을 세 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Agape'(아가페)로, 영어로 번역하면 'Give' 즉 '준다'는 의미입니다. 준다는 것은 주는 측면에서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혹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9~10절을 통해 답해 보세요.
3.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11~12절을 통해 답해 보세요.
4.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2절을 묵상한 후 적어 봅시다.
5. 나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 수 있나요?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나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말뿐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조건 입으로 먼저 넣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색깔도 구분하고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분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것이 맛이 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도 기억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13:11)**

##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드린 감사 기도



1948년 10월 27일 아침,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살 당한 두 아들의 장례 예배 중 손양원 목사의 답사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 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 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